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일상의 기록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of the
Everyday life's Recording.

2017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오 수 영

일상의 기록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of the
Everyday life's Recording.

지도교수 이명아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7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오 수 영

오수영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요약	i
표목차	ii
도목차	ii
작품목차	iv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기록의 개념 및 특성	3
2. 기록을 주제로 한 작품사례	4
3. 일상의 개념 및 특성	9
4.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사례	10
III. 작품제작 및 해설	15
1. 작품계획	15
2. 제작과정	17
3. 작품해설	24
IV. 결론	34
참고문헌	36
영문초록(Abstract)	37

요 약

제 목 : 일상의 기록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연구

기록은 기억들을 언제라도 불러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사라지는 기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기록은 지나간 순간의 이미지를 쉽게 불러올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며, 자신의 기억을 남기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재연된 이미지의 시각적인 표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존재했었던 실제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본 연구자가 남기고 있는 흔적들은 재연된 이미지를 통해서 개인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기억은 계속해서 생성되고 소멸된다.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되어, 과거의 기억과 합쳐지기도 하고, 또 하나의 순간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러한 기억들은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처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술가에게 있어 의미 있는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본 작업에서 표현되어지는 일상의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록들은 때때로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본 연구자에게 가치 있는 기록들이며, 쉽게 사라져버리는 과거를 영속성을 지닌 흙이라는 질료에 담아냄으로서 소중한 순간을 담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판으로 제작된 작업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과거의 기억과 지나간 순간에 대한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관람자로 하여금 그들의 기억과 추억을 이끌어 내주는 간접적인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작품에서 종이는 선택된 오브제(Object)이며 연구 작품의 형태와 사이즈의 모티브이기도 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한 종이가 아닌 본 연구자의 유년시절부터 기록된 공간의 역할로서, 규격화된 기억의 프레임이며 저장소인 것이다. 기억은 색과, 텍스트, 오브제를 통해서 도자 조형물로 기록되었고, 본 작업을 통해 도자 조형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일상의 기록은 본 연구자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아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록행위가 조형 예술에서 시각적 표현 가능성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미적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표 목차

<표1> 종이 규격사이즈	16
<표2> 1050℃ 발색 테스트	17
<표3> Duncan Cover-Coat 색상	19
<표4> Duncan Envision Glazes 색상	19
<표5> 컬러별 발색테스트	21
<표6> 전시장 전경	23

도 목차

[도1] 라스코 동굴벽화	4
[도2] 룬 문자(Runic alphabet)	4
[도3] 빗살무늬토기	5
[도4] 밀양박씨 지석	5
[도5] 경주김씨 지석	5
[도6] 멜 보크너(Mel Bochner), 측량방, 1969	6
[도7] 멜 보크너(Mel Bochner), 비언어적 구조, 1973	6
[도8] 멜 보크너(Mel Bochner), 블라 블라 블라, 2008	6
[도9]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 1995	6
[도10]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질문들, 1991	6
[도11]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당신의 몸은 전쟁터, 1989	6
[도12] 제니 홀저(Jenny Holzer), 경구들, 1977	7
[도13] 제니 홀저(Jenny Holzer), 생활, 1980-82	7
[도14] 제니 홀저(Jenny Holzer), 올 풀, 2012	7
[도15] 로만 오팔카(Roman Opalka), 1-∞(Detail 51130-512739), 1965	8
[도16] 로만 오팔카(Roman Opalka), A pair of portrait photographs , 1965	8
[도17] 로만 오팔카(Roman Opalka), The Finite Defined by the Non finite, 1965-2011	8
[도18]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1965	8
[도19] 조셉 코쿠스(Joseph Kosuth), Box, Cube, Clea	8
[도20] 제스퍼 존스(Jasper Johns), 숫자8, 1959	9

[도21] 제스퍼 존스(Jasper Johns), False start, 1959	9
[도22] 제스퍼 존스(Jasper Johns),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과녁, 1955	9
[도23] 온 카와라(On Kawara), 오늘, 1966	11
[도24] 온 카와라(On Kawara), ‘나는 만났다’ 를 위한 메모 1963	11
[도25] 온 카와라(On Kawara), 나는 갔다, 1973	11
[도26] 그레이슨 페리(Grayson Perry), Language of Cars, 1999	12
[도27] 그레이슨 페리(Grayson Perry), I Hate You, I Hate Myself, 2000	12
[도28] 그레이슨 페리(Grayson Perry), Troubled, 2000	12
[도29] 존 발데사리(Jone Bladessari), 연필이야기, 1972-1973	13
[도30] 존 발데사리(Jone Bladessari), 나는 더 이상 지루한 미술을 만들지 않겠다.	13
[도31] 존 발데사리(Jone Bladessari), 네 개의 의뢰된 그림, 1986	13
[도32] 장 미셸 바스키아(Joan Michel Basquiat), God, Law, 1981	13
[도33] 장 미셸 바스키아(Joan Michel Basquiat), CPRKR, 1982	13
[도34] 장 미셸 바스키아(Joan Michel Basquiat), Hollywood Africans, 1983	13
[도35] 실비아 하이만(Sylvia Hyman), 점토로 만든 페이지, 2003	14
[도36] 실비아 하이만(Sylvia Hyman), 용기 안에 담긴 오브제, 2003	14
[도37] 연구자의 유년시절 실제 기록물	16
[도38] 가압성형기법을 이용한 판 성형 제작과정	17
[도39] 세리프 서체	20
[도40] 산세리프 서체	20
[도41] 산세리프체를 사용한 로고	20
[도42] Grunge texture	21
[도43] 산세리프 폰트 사이즈비교	21
[도44] 최종 전사도안	17
[도45] 하회전사지 부착과정	22
[도46] Ceramic Pencil 기록들	22

작품 목차

〔작품1〕 20160721	24
〔작품2〕 20161020	25
〔작품3〕 20161018	25
〔작품4〕 20170206	26
〔작품5〕 20170127	26
〔작품6〕 20170205	26
〔작품7〕 20170203	26
〔작품8〕 20161208	26
〔작품9〕 20170203	26
〔작품10〕 20160924	27
〔작품11〕 20170104	27
〔작품12〕 20170118	27
〔작품13〕 20170109	27
〔작품14〕 20161010	28
〔작품15〕 20160110	28
〔작품16〕 20170205	28
〔작품17〕 20170112	28
〔작품18〕 20161214	29
〔작품19〕 20160920	29
〔작품20〕 20170131	29
〔작품21〕 20161204	30
〔작품22〕 20161114	30
〔작품23〕 20161214	30
〔작품24〕 20160920	31
〔작품25〕 20170131	31
〔작품26〕 20161130	32
〔작품27〕 20161012	32
〔작품28〕 20170102	32
〔작품29〕 20170124	32
〔작품30〕 20161121	32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억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매 순간들이 모여 기억을 구성한다. 기억은 의식적으로 잡아두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고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변질되고 또 다른 기억으로 저장된다. 기억은 순간의 감정과 상황이 함께 저장되며, 실제 존재하는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로 기억되기도 한다. 기록으로 남겨진 것들은 대부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부분적으로 기억되거나, 색 또는 단어 등의 다른 표상으로 기억된 것이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기억은 대부분 망각에 의해 점차 사라진다.

이렇게 사라지는 기억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려 무의식적으로 낙서와 기록을 했고, 그것은 중요한 습관이 되어버렸다. 우연한 기회에 유심히 보게 되었던 본 연구자의 기록물들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자에게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흔적들이었다.

이러한 경험에 빚대어 본 연구자는 의식적인 인간의 활동 중 기록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상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가 본 연구자의 존재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흙이라는 질료를 통해 주관적이고 내적인 시간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 하였다.

일상의 기록을 주제로 한 본 연구를 통해 정체성과 자아를 찾아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록행위와 흙이라는 질료에서만 가능한 기록의 표현들이 도자조형예술에서 시각적으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자는 일상적인 기록 행위를 모티브로 하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일상적이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정보들, 시간과 날짜 등 1인칭 시점에서 겪는 모든 사항들을 기록한다. 이러한 일상의 기록들이 삶의 궤적으로 녹아들며, 본 연구자를 대체하는 흔적으로 여겨지는 모습에 중점을 두어 연구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의 특성과, 일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조형예술에 접목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보았다.

둘째, 과거의 사례 그리고 동시대 작가들 중 기록이라는 행위와 문자를 다루는 작품 안에서 표현된 이론적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작품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작품 내용과 전개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셋째,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의 기록에 관한 흔적으로서 도판작업을 다루는 과정에 대해서 제작 계획과 제작 과정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넷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연구 작품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설치된 작품의 해설을 진술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일상의 기록 행위가 현대미술에서 조형적 표현 방법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록의 개념 및 특성

인간의 행위를 통한 흔적들 중 기록은 가치 있는 흔적이며, 가치 있는 것이다.

최초의 기록물들로는 동굴벽화, 룬 문자(rune 文字)등이 있다. 특히 라스코 동굴벽화와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그 시대 예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도1] [도2] 벽화가 보여주는 동물들의 형상은 장엄하고도 아름답다. 더 나아가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오히려 신비감에 가깝다.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앞날에 예술적,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간주되어 짐을 알 수 있다.

몸짓과 소리 같은 기억들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기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숫자나 문자이다. 즉, 기록은 순간 같은 무형의 것을 기호로 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곧 문자인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사고는 유형의 문자로 생각을 담아두는 기록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림과 동시에 더욱 독창적이며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주위에는 수많은 기록들의 흔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기계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가 재생되어 비춰지고 들려진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적인 정보들과 함께 수많은 기록들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억의 보관방법과, 표현이 확장되면서 저장 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술의 소재로서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기록(텍스트)을 주제로 한 작품사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제니 홀저(Jenny Holzer)는 ‘텍스트’를 작업 재료로 선택해 인쇄물이나 옥외 광고판, LED 전광판을 이용해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한다. 홀저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깨우침과 현명한 각성을 유도하기도 한다.¹⁾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록들은 언어가 가진 본연의 특성 뿐 아니라 조형적인 개체의 역할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상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상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일은 독특하고 매우 개인적인 능력이다. 대부분의 기억은 본인의 견해나 관점에 따라 구성되며, 기억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진 다이어리나 일기 같은 기록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기록행위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인간이 기록행위를 통해

1) 홀저(Jenny Holze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공간 안에 담아 보관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은 삶의 자양분이 되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중요한 역할이다. 이에 한 개인의 일상적인 기록이 가치를 가지고, 자아를 찾아가기 위한 예술적 표현의 대상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도1〕 라스코 동굴벽화



〔도2〕 룬 문자(Runic alphabet)

2. 기록을 주제로 한 작품사례

현존하는 다양한 소재들 중 도자기는 영속성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지닌다. 도자기는 특별히 파손되지 않는 한, 세기를 거듭 할 수 있을 만큼 온전히 유지된다. 박물관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도자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자기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을 토기라고 하며,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대로, 한반도는 신석기 시대이며, 그릇 모양은 밀창이 달걀처럼 생긴 것과 밀이 납작하여 깊은 바리처럼 생긴 것이 대표적인데, 그릇 종류에는 독 모양이 큰 것을 비롯하여 항아리·단지·대접·보시기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²⁾ 빗살무늬토기는〔도3〕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손 없이 보존되어 과거의 문화와 흔적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도자기의 기록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로는 ‘지석’이 있다.

〔도4〕〔도5〕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무덤의 소재와 방향 등을 기록하여 무덤의 앞이나 옆, 관위 혹은 묘광 속에 묻는 판석 혹은 도판 등을 말하며 흔히 묘지라고도 한다.³⁾ 지석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돌에 새긴 형태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려시대까지는 돌에 새긴 것이 많았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자기, 석제, 지석 등으로 폭넓게 나타난다. 형태도 평면적인 것과 입체적인 것으로 다양각색이다.

지석이 보편화되는 조선시대의 지석은 직사각형판의 도자기 지석이 압도적으로 많

2)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3) 지석(石), (네이버국어사전, <http://kcdic.naver.com/>)

고 기록기법으로는 청화나 철화로 필사한 것이 주를 이루고, 음각한 지식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렇게 돌이나 도자기 새겨진 묘지명은 한 개인이 죽은 이후에 바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대에 정리된 역사책이나 족보와 같은 문헌자료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정확하고, 생생한 내용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묘지명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충실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자기는 과거부터 기록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며 현대에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도3〕 빗살무늬토기



〔도4〕 밀양박씨 지석



〔도5〕 경주김씨 지석

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기록들 중에서, 문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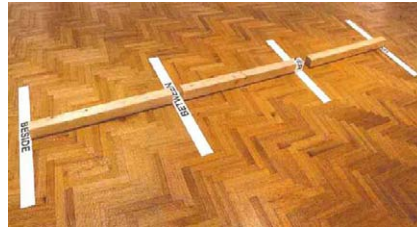
20세기 초 미술은 텍스트를 ‘문자의 이미지’로서 수용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부 풍경화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문자 자체를 작품에 삽입하거나 시각적으로 재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자가 미술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세기의 산업혁명이 있었다. 이로 인해 상업적인 포스터, 간판, 포장, 신문 등이 가세하며 상업적 인쇄 이미지들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었다. 문자는 르네상스 이후 서양 회화에서 점차 사라졌다가 혁신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미술작품의 물질적 측면보다 관념성의 비물질적 측면을 중요시 하는 개념미술의 등장으로 문자는 완전히 표현과 조형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대미술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어서 문자를 사용한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멜 보크너 (Mel Bochner)

멜 보크너는 1960-70년대의 개념미술에서 개념과 실체를 대조하기 위해서, 또는 개념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였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언어를 드로잉, 회화,

판화등의 회화적 형식과 접목시키는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개념미술기의 작업과 이후의 회화적 작업들이 언어에 대한 상이한 활용을 보여줌에 따라 개념미술 이후 미술에서 언어가 어떻게 변용되고 다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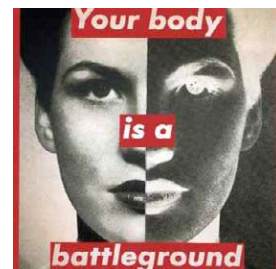
〔도6〕 멜보크너, 측량방, 1969

〔도7〕 멜보크너, 비언어적 구조, 1973

〔도8〕 멜보크너, 블라 블라 블라, 2008

2)바바라 크루거 (Barbara Kruger)

미국의 개념미술가 바버라 크루거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는 대담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는 사진과 텍스트를 결합하는 독특한 예술형식을 통해, 기존 예술을 비판하고 사회제도적 권력에 항거하였으며 남성지배 구조의 사회적 편견에 저항했다. 작품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들은 그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문구의 사용은 사진의 이미지가 수반하고 있는 부조리함으로 주의를 돌리게 만든다.⁵⁾



〔도9〕 바바라크루거,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 1995

〔도10〕 바바라크루거, 질문들,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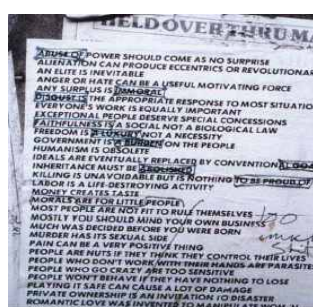
〔도11〕 바바라크루거, 당신의 몸은 전쟁터, 1989

4) , (2015), 「멜 보크너(Mel Bochner)의 미술에 나타난 언어의 타이포그래피적 표현과 의의」,극동대학교

5) 바바라 크루거 (Barbara Kruger),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3)제니 홀저 (Jenny Holzer)

제니홀저는 의사전달의 도구인 ‘텍스트’를 자신의 작업재료로 선택하였다. 작업의 바탕이 되는 텍스트들은 간단하고도 애매모호하며 냉담하다. 짧은 문장 또는 단락으로 구성되는 그의 경구는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여성적이면서도 정치적이다. 그의 작품은 포스터뿐만 아니라 티셔츠나 야구모자, 경주용 자동차, 의자, LED 전광판, 인터넷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우리 삶의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이야기를 건넨다.⁶⁾



〔도12〕 제니홀저, 경구들, 1977

〔도13〕 제니홀저, 생활, 1980-82

〔도14〕 제니홀저, 올 폴, 2012

4)로만 오파카 (Roman Opalka)

1965년 오파카는 그의 일생을 통한 대 프로젝트인 《1965/1-∞》 연작을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검정 바탕에 흰색 물감으로 좌측 상단에서부터 숫자 1을 그리기 시작해 무한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는 작업이었다. 이 연작에 속하는 모든 캔버스는 동일한 규격(196 × 135cm)이며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그렸다. 오파카는 1970년대 초반부터 하나의 캔버스가 완성될 때마다 캔버스 바탕색에 1%씩의 흰색 물감을 첨가해 나갔다. 그럼으로써 이전의 검정 배경은 점차 회색으로 변하고 궁극에는 흰색의 바탕에 흰색의 숫자를 적어 내려가 배경과 숫자의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오파카는 숫자를 그리고 공간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 흘러가는 시간의 궤적을 보여준다.

6) 홀저(Jenny Holze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그의 작업은 시간성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실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⁷⁾



〔도15〕 로만오파카, 1- ∞ (Detail 51130-512739), 1965

〔도16〕 로만오파카, A pair of portrait photographs , 1965

〔도17〕 로만오파카 , The Finite Defined by the Non finite, 1965-2011

5)조셉 코수스 (Joseph Kosuth)

코수스의 작업은 극적인 표현방법으로, 텍스트와 사진을 이용하며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였다. 특히 텍스트는 그의 작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계속적으로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텍스트를 의미체로 인식하여 작품 내의 다른 요소들과 관련지어 이루어내는 개념을 제시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그의 작업에서는 텍스트 그 자체가 갖는 지시적인 의미부여성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 모든 작품이 의미에서 출발하여 각각의 요소에 관련되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⁸⁾



〔도18〕 조셉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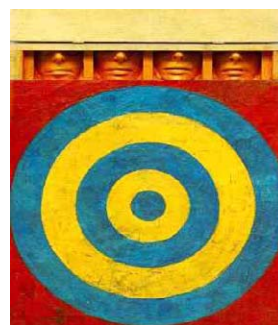
〔도19〕 조셉코수스, Box, Cube, Clear, Glass, 1965

7) 오파카 (Roman Opalka),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8) 김정화, (2015), 「이미지와 텍스트가 혼용된 미술작품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이후 서양미술을 대상(象)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6) 제스퍼 존스 (Jasper Johns)

존스가 작품의 모티프로 삼은 국기, 과녁, 지도, 숫자, 알파벳 등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지만 존스는 그것들을 안료에 고착제 역할을 하는 뜨거운 밀랍을 섞은 납화법을 이용하여 작품이 인위적이며 예술적 가치를 지닌 대상처럼 보이게 표현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그려진 화면이자 동시에 이차원적 평면성을 지닌 오브제라고 하는 이중 구조적 특색을 지닌다.⁹⁾



〔도20〕 제스퍼존스, 숫자8, 1959

〔도21〕 제스퍼존스, False start, 1959

〔도22〕 제스퍼존스,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과녁, 1955

3. 일상의 개념 및 특성

사전적 의미의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다.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당연히 맞게 맞이하고 지나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희로애락이 담긴 현실이다. 시간의 흐름을 직선적 구조로 본다면 일상은 그 직선을 이루는 점 하나하나로 볼 수 있다. 일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긴 시간의 흐름을 통한 포괄적 시점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독특하고 특별한 사건 등은 일상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이것 역시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상은 실존적이고 영속적인 것이다.

1960년 팝아트의 등장 이후 미술사에 있어 일상적 삶에 대한 주제는 현재까지도 화두 되고 있다. 오늘의 미술은 미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재현적인 미술과는 다르다. 일상은 오로지 자신만이 주체가 되어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현상들

9) 존스 (Jasper Johns),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삶의 과정이다. 또한 자신만의 주관적인 가치관등을 결정짓는 의식체계이기도 하다.

이에 일상에는 의미 없이 매일 반복만 되는 시간이 아닌 자신을 찾아가는 밑도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은 밑바탕이 되어 지난날을 통해 자신이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에게 일상은 습관적인 활동들과 성찰되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영역이다. 모두의 일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활동형태는 무의식적이고 자연적인 경향을 갖기 때문에 일상적 삶의 세계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4.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사례

미술에 있어서 주변의 일상적인 환경은 새로운 주제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0) 1960년대 팝아트의 등장 이후 미술사에 있어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은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현재의 예술은 미적인 것만 생산하던 이전의 예술과는 다르게 사회, 문화 등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상에 기초하고 있다. 일상에는 패션, 건축 등의 일반적인 예술분야를 넘어서 광고, 영화는 물론 사소한 소품에서도 의미와 형태를 담고 있고 그것을 작품 안에서 노출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일상은 작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일상 속에서의 오브제를 사용하는 것과, 둘째는 다수가 공감하는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오브제의 역할은 표현방법에 있어서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초는 다다이즘(Dadaism)에서 시작되어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네오다다(Neodada) 등에서 현재까지 다양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되었다. 현대미술의 징후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레디메이드(ready-made) 작품인 <샘> 으로부터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폐품이나 일용품은 비롯하여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인 아상블라주(Assemblage)¹¹⁾ 또한 예술을 대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서 일상의 표현은 개인의 삶을 포함해 한 시대와 사회를 투영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개인적 이야기들은 결국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속된 사회와의 유사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실주의(Realism)는 어떤 사물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옮기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작가의 삶 자체를 주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을 대중문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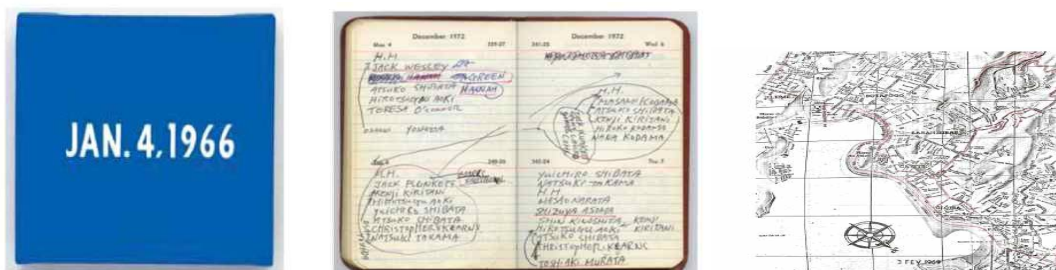
10) H.H. , (1991), 「현대미술의역사」 인터네셔널아트, P.44

11) 아상블라주(Assemblage),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확대시키며 대중들과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살펴보면 작품들에서 보이는 표현방법과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온 카와라 (On Kawara)

온 카와라의 작품에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며 매일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작 <오늘>을 비롯하여 함께 진행된 모든 작업들은 자전적 기록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그날 만난 사람들을 기록하는 <나는 만났다>, 하루 종일 그의 이동경로를 기록한 <나는 갔다>, 하루 동안 읽은 기사들 중 인상적인 내용을 스크랩한 <나는 읽었다>, 등 대부분이 자신의 일상에 대한 기록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작업들 속에서 카와라는 자신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일상적이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정보들, 그러나 존재의 현존을 증명하는 정보인 시간과 위치, 만남의 대상 등 1인칭 시점에서 겪는 모든 사항들을 기록한다. 작품을 제작할 때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한다.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다 국적의 언어와 보편적 기호인 숫자는 카와라가 인간으로서 본인의 현 위치, 현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즉물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대변한다.¹²⁾



〔도23〕 온 카와라, 오늘, 1966

〔도24〕 온 카와라, ‘나는 만났다’를 위한 메모 1963

〔도25〕 온 카와라, 나는 갔다, 1973

12) , (2016), 「온 카와라(On Kawara)의 언어를 사용한 자기 기록적 작업에 대한 연구. '저자성'과 '지연된' 시간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9-41

2) 그레이슨 페리(Grayson Perry)

도예가 겸 사진작가인 그레이슨 페리는 고전적인 형태의 도자기에 노골적 이미지를 그려 넣어 사회를 풍자한다. 그의 작품은 화려하게 채색되었고, 사진을 전사 하는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도자기에 기록한다. 이것들은 멀리서 보면 밝게 채색된 꽃병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관찰하면 비전통적인 그림들이 드러난다. 평범한 물건들을 취하여, 단순한 세공품에서 사회의 치부를 꼬집는 풍자적인 비평으로 가득 찬 미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페리의 능력은 위트 있고 도전적이며, 대개는 신랄함으로 충격적이다.¹³⁾



〔도26〕 그레이슨 페리, Language of Cars, 1999

〔도27〕 그레이슨 페리, I Hate You, I Hate Myself,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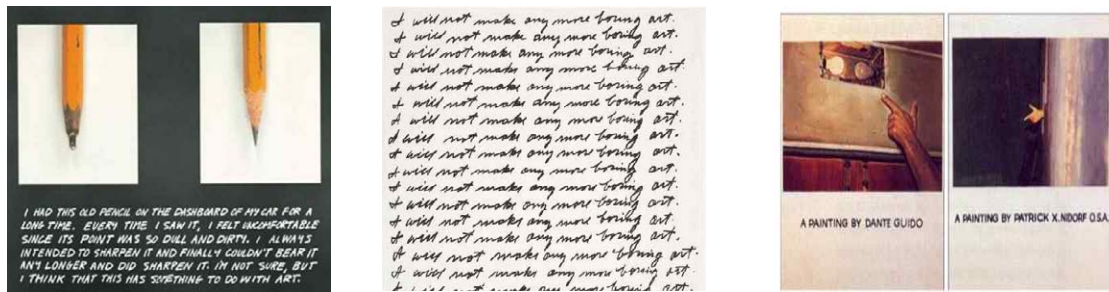
〔도28〕 그레이슨 페리, Troubled, 2000

3) 존 발데사리 (Jone Baldessari)

1967년에서 1968년에는 주로 텍스트만으로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자 문자와 사진을 결합한 형태를 취하였다. 그는 언어와 시각성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삼으며 문자와 형상에 대한 언어학적, 철학적 고찰을 이어갔다. 1980년대 이후에는 사진만으로 구성된 '복합사진 composite photowork'을 통해 형상만으로도 글과 같은 서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잡지나 신문, 광고 등에서 오려낸 사진을 재료로 이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의 작품은 사진과 회화, 구상과 추상 등 매체와 양식의 다양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서전적이면서도

13) 페리(Grayson Perry),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역사와 사회, 문명을 아우르는 중층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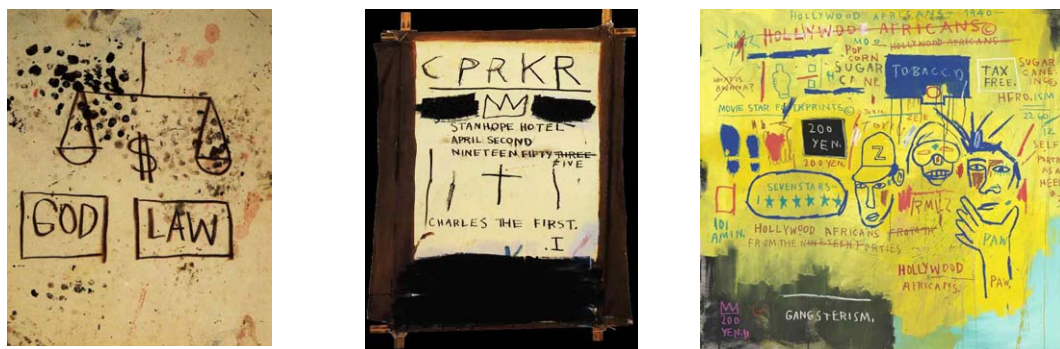
〔도29〕 존 발데사리, 연필이야기, 1972-1973

〔도30〕 존 발데사리, 나는 더 이상 지루한 미술을 만들지 않겠다, 1971

〔도31〕 존 발데사리, 네 개의 의뢰된 그림, 1986

4)장 미셸 바스키아 (Joan-Michel Basquiat)

바스키아는 자기표현과 감정을 지하철과 거리의 벽 등에 낙서를 하다 주목을 받으며 미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에 도구로 여겨지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흑인 화가에게서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이슈를 일깨워 주었다. 짧았지만 왕성한 활동을 보인 바스키아가 보여준 형식은 도시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현상을 다루면서 날카로운 시선을 담을 작품으로 그만의 기발한 사유양식을 보여준다. ¹⁵⁾



〔도32〕 장 미셸 바스키아, God, Law, 1981

〔도33〕 장 미셸 바스키아, CPRKR, 1982

〔도34〕 장 미셸 바스키아, Hollywood Africans, 198

14) 발데사리 (Jone Baldessari)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15) 오상미, (2010), 「장 미셸 바스키아의 회화 연구 : 기호화된 상징성 표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실비아 하이만 (Sylvia Hyman)

하이만의 작품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그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된 것들이다. 일상적 오브제, 그것이 낯선 것이든 친숙한 것이든 대상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기 위해 흙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의 작품들은 뒤샹이후 미술에서 논란이 되었던 오브제의 개념, 즉 기능적인 오브제의 장식성과 조각적 특성 등의 논제들을 상기시키며, 수공예와 기성품의 경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은 의도적인 논란을 자아낸다. 하이만의 오브제 중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나무, 판지, 낡은 상자, 나무 껍질로 만든 바구니들은 값싸고 실용적인 용기들로서 전통적인 예술의 관점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재료들이지만 고도의 테크닉에 의해 실제와 똑같이 제작되어 현대적 용기로 전환된다. 이러한 기법의 시행은 점토의 소성에 의해 영구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며, 덧없이 사라지는 일시적인 가치의 관계 양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¹⁶⁾



〔도35〕 실비아 하이만, 점토로 만든 페이퍼, 2003



〔도36〕 실비아 하이만, 용기 안에 담긴 오브제, 2003

16) 하이만 (Sylvia Hyman)(클레이파크, <http://claypark.net/>)

Ⅲ. 작품제작 및 해설

1. 작품계획

일상의 경험을 통한 기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존재를 인지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있는 가치 있는 행위가 기록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작품을 계획하였다.

하루에도 오만가지의 생각을 하지만 집중을 해도 기억에서 사라지기 십상이다. 사라지는 이 기억들을 잡아두려 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낙서와 기록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곧 기록하는 습관으로 남게 되었다. 그 기록들은 논리정연하거나 합리적이지는 않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다운 흔적이었다. 지금까지도 찰나의 순간들과 기억하고 싶은 것은 꼭 담아두고 싶은 의지는 여전하다.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종이라는 기록의 공간은 본 연구자를 가장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드는 곳이다. 또한 종이의 빈 공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망각을 잡아두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기록은 특정한 사건이 아닌 일상에서의 것들을 대상으로 삼고, 본 연구자가 존재하는 일상의 모습을 담아 보고자 매일 매일 반복적인 기록을 하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나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있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양한 기록들 중에 본 연구자에게 있어 대표적인 것으로 다이어리를 말하고 싶다. 사적이고 비밀스런 감정이나 생각들이 자유롭게 내재되어 있는 공간이면서, 가장 솔직하고 편안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된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된 날짜는 순간을 쉽게 회상할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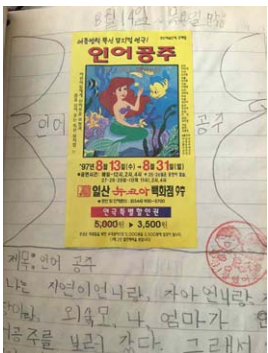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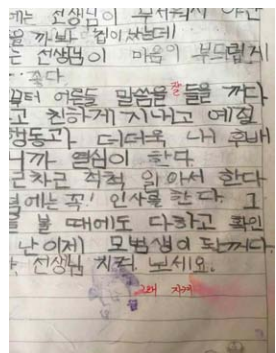
이 같이 대부분의 기록들은 A₅, A₄, A₃ 용지 같은 규격화된 종이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본 연구 작품에서 종이는 선택된 오브제(Object)이며, 작품형태와 사이즈의 모티브가 되는 중요한 소재이다. 종이는 곧, 본 연구자에게 있어 기억의 프레임이며 의미 있는 공간이다. 특히 A₄ 용지는 본 연구자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익숙한 기록의 도구이며,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소재이다. 그러므로 A₄ 용지는 곧 일상의 오브제로서 기록을 담아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또한 규격화 된 용지들은 규격화된 일상과도 많이 닮아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라는 시간을 규격화된 용지라고 한다면, 각기 다 다른 시간을 보내는 다채로운 하루를 규격용지의 사이즈별로 나타낼 수 있다. <표1>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일상의 형태는 총 3가지로 제작 되었다. 제작 방법으로는 가압성형방식을 통해 다수의 기물을 일정한 크기에 맞게 제작할 수 있었다. [도38] 매일매일 한 개씩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도판의 반복되는 형태를 통해서 특정한 하루가 부각되는 것이 아닌 매일 매일의 지나간 일상을 골고루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규격화 된 3가지 형태로 반복하여 나타냄으로서 때로는 비개성적이고 진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반면에 연속적으로 나열된 것 중 일부의 변화로 시간과 일상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유년시절의 빛바랜 색을 띄는 종이의 미색과 가장 비슷한 색상이 되는 소지인 조합토를 선택하여 종이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도37] 조합토는 색상 뿐 아니라 질감표면에도 적합하였다. 또한 크고 작은 샤모트의 입자가 들어있어 점력과 내화도가 좋아, 판관해야하는 종이형태를 내는 판 성형을 하기에 타 소지보다 적합하였다. <표2>

명칭	치수(mm)
A0	841x1189
A1	594x841
A2	420x594
A3	297x420
A4	210x297
A5	148x210
A6	105x148
A7	74x105
A8	52x74



<표1> 종이 규격사이즈

[도37] 연구자의 유년시절 실제 기록물

작품의 제작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기록의 도구인 규격화 된 종이를 모티브로 형태와 사이즈를 참고 하여 주제표현에 적합한 형(形)을 구상한다.

둘째, 적합한 형(形)에 해당하는 원형을 만들고, 가압성형(Press-Forming) 기법을 바탕으로 판 성형을 한다.

셋째, 일상의 기록을 유약, 세라믹 펜슬(Ceramic Pencil), 전사 등의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알맞은 방법을 찾고 실험을 진행한다.

넷째, 판 성형한 작업물이 휘거나 크랙 없이 소성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소성온도와 소성 분위기와, 하회전사 온도에 유의하여 실험한다.

다섯째,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각 도판에는 그날의 날짜를 기록하여, 매일 매일의 기록을 나타내는 장치를 만든다.

2. 제작과정

작품 사이즈는 3가지로 구성된다. A타입은 선택된 사이즈 중 작은 사이즈인 A₅, B타입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A₄, C타입은 가장 큰 사이즈인 A₃로 성형한다. 3가지 타입은 모두 가압성형(Press-Forming) 기법을 이용한 벽걸이 (Wall-Hanging)형으로 도판에 유약과 화장토, 하회전사 세라믹 펜슬 등을 이용하여 작품의 주제인 기록을 표현한다.

기록을 하기위해 소지 자체의 발색이 어둡지 않아야 하며, 본 연구자가 유년시절에 기록했던 빛 바란 색을 띠는 종이의 미색과 가장 비슷한 태토가 되는 조합토로 선택하였다. 조합토는 색상 뿐 아니라 샤모트의 입자가 들어있어 판 성형을 하기에 다른 소지보다 점성이 좋고, 텍스처의 표현에 용이하다.

1) 원형과 몰드의 제작 및 소성



작품의 모티브가 된 종이 규격사이즈인 A₅(148x420), A₄ (210x297), A₃ (297x420) 용지의 사이즈가 소성 후에도 상이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토 자체의 수축률인 10%를 감안하여 더 크게 만든다.

도판을 제작하는 소지가 되는 조합토의 경우, 특별히 소지를 만들지 않고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타 소지에 비해 내구성이 강해 판 작업을 하기에는 강점을 가진 소지이다.

작업의 가장 첫 번째는 토련인데, 토련은 당일 사용할 만큼만 사용하여 뽑아낸다. 이때, 흙을 눌러 표면이 단단하면 수분이 적은 것이고, 물렁하면 수분이 너무 많은 것이므로 이 둘의 경우를 주의하며 수분함량이 적절한 상태를 찾는다. 토련 후 원통형으로 뽑아낸 흙을 1.2cm 두께로 자른다. 준비된 소지를 직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각이 지게 나올 수 있도록, 나무 몰드에 밀도 있게 눌러주며 형태를 만든다. 적절한 건조 상태가 될 때까지 바람이 통하지 않게 신문지와 비닐 속에서 보관하며 자주 뒤집어 준다. 뒤집어 줄 때는 도판 위아래의 나무판을 잡고 동시에 회전 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도판은 사방을 막아둔 건조대에서 보관하는데,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판 건조과정에서 도판의 앞뒤면의 건조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문지를 깔아주어 건조속도를 맞춰야한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천천히 건조 시킨다.

완전건조 후 에는 초벌소성을 위한 가마재임을 준비해야하는데, 내열판 위에 도판이 넉넉하게 얹어질 수 있도록 크기가 맞는 것을 찾고 850℃ 로 설정하여 소성한다. 이후 표면장식에서 사용될 유약인 던컨유의 적정온도는 약 1050 ℃ 로 천천히 재벌 소성한다.

	조합토
소성 전	
소성 후 (O.F)	



<표2> 1050 ℃ 발색 테스트

[도38] 가압성형기법을 이용한 판 성형

2) 색상계획

색상	번호	색상명	색상	번호	색상명
	CC 109	Sunset Pink		IN 1001	Clear
	CC 112	Light Flesh		IN 1026	Very Black
	CC 119	Charcoal		IN 1074	Cranberry
	CC 121	Temple Grey		IN 1075	Cobalt Blue
	CC 153	Avocado		IN 1116	Emerald Bay
	CC 164	Ice Grey		IN 1670	Sun Yellow

<표3> Duncan Cover-Coat 색상

<표4> Duncan Envision Glazes 색상

3) 표면장식

(1) 하회 전사

전사의 방법은 크게 상회와 하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소성온도이며, 재벌 된 기물에 사용하는 상회 전사와 달리 하회는 유약질이 없는 초벌기물에 사용하기 때문에 한지 또는 창호지 전사라고도 불린다. 하회전사는 상회전사에 비해 1회의 소성과정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안료가 고온에서 발색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색감만 쓸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일상의 기록은 대부분 알파벳과 숫자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폰트의 디자인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폰트는 크게 세리프(Serif) 서체와 산세리프(Sans-Serif)서체로 구분된다. [도37], [도38] 먼저 세리프 서체는 문자의 획 끝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며, 주로 글의 본문에서 사용된다. 왜냐하면 가독성을 높여주기 때문인데, 지금 본 논문의 폰트가 세리프 서체이다. 산세리프 서체는 Serif에 Sans라는 접두어가 붙은 그리스어로서 Sans은 ‘없음’을 의미한다. 즉, 돌출된 부분이 없는 글씨체를 말한다. 획의 굵기가 일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세리프 서체는 산세리프체에 비해 독자의 이해도를 무려 다섯 배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한다.¹⁷⁾ 이러한 이유로 책, 신문, 논문 등의 하드카피 자료는 대부분 세리프체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PC나 모바일과 같이 디스플레이를 거쳐 그 자료를 접할 때에는 세리프서체 보다는 산세리프체가 가독성면에서 탁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 폰트가 뭉개져 보일 수 있는 세리프서체 보다 글자의 빠침이 없이 획의 굵기가 일정한 산세리프체가 눈의 피로를 덜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39] 세리프서체

[도40] 산세리프서체



[도41] 산세리프체를
사용한 로고들

17) Wheildon, Colin (1995). Type and Layout: How Typography and Design Can Get your Message Across - Or Get in the Way. Berkeley: Strathmoor Press. p.57

도자기에 전사를 입히는 것은 디스플레이를 거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단어와 낱자 등의 짙막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지는 기록은 산세리프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가독성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기록은 지나간 흔적이기 때문에 흐릿하고, 먼지나 때가 묻은 느낌의 Grunge texture효과를 추가하여, ‘기록’을 완성하는 폰트디자인을 하였다. [도40] [도41]



[도42] Grunge texture



[도43] 산세리프 폰트 사이즈비교

하회전사의 특성상 안료가 고온에서 발색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색만 쓸 수 있었다. 권장온도인 1240~ 1260℃에서 소성 가능한 색은 갈색, 검정색, 파란색 3가지였고 시편 실험을 통해, 소지 그리고 폰트디자인과 잘 어우러지는 갈색을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5>

색상	조합토
Brown	
Black	
Blue	

<표5> 컬러별 발색테스트



[도44] 최종 전사도안



① 사용할 부분 오리기



② 초벌기물 위에 올려두고
스펀지 또는 붓으로 눌러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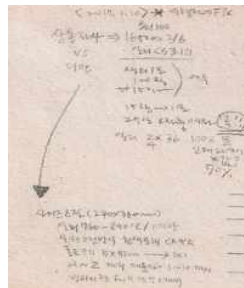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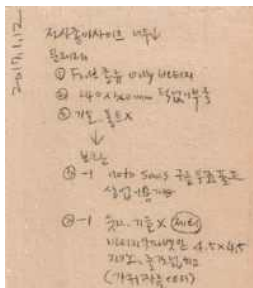
③ 여러 번 문지르면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며
밀착시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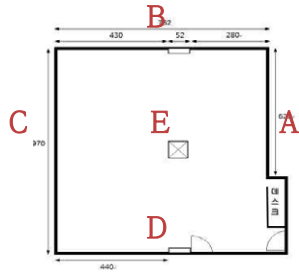
④ 전사지 천천히 떼어내기

〔도45〕 하회전사지 부착과정

(2) Ceramic Pencil



〔도46〕 Ceramic Pencil 기록들



위치	관람순서	Concept	실제 전시 사진
A	1	기록을 위한 도구들 (Tools for Recording)	
B	2	작업 기간 동안 수집한 실제 기록물들과 오브제(Object)	
C	3	작품 (Works)	
D	4		
E	5	체험 존 (Experience Zone)	

〈표6〉 전시장 전경

3. 작품해설

〔작품 1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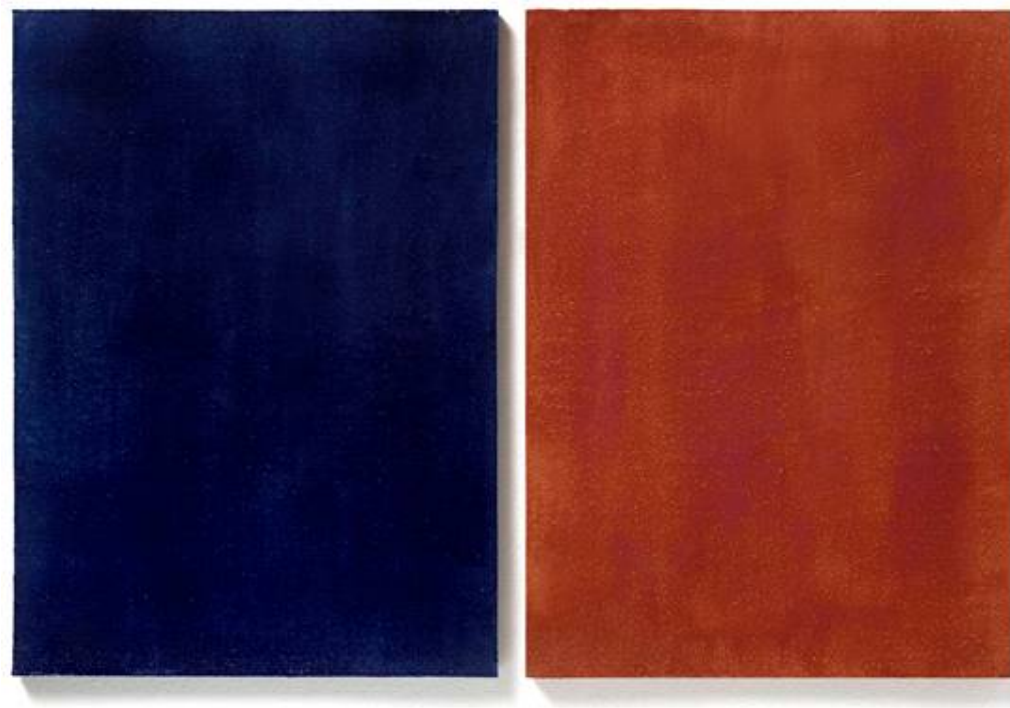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작품 속 이미지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얻어진 것으로, 주관적으로 기록된 것들이다.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과 감정을 기록해나가며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아닌 현재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물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작품1〕 20160721

148x210x10mm, 조합토, Duncan Cover-Coat, Duncan Envision Glazes,
하회전사 1050℃ O.F

엄마와의 두 번째 여행지였던 베트남 미케비치의 이미지를 색으로 기록한 작품이다. 던컨 화장토 CC119 (Charcoal)를 사용하여 무더운 여름 바다를 표현했고, 던컨유 IN 1116 (Emerald Bay)를 바른 초록색의 광택(Glossy) 조각은 야자수를 의미한다. 각각의 색과 표면질감에 대비를 주어 여행지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2〕 20161020 〔작품3〕 20161018

297x420x10 each 조합토,
Duncan Envision Glazes, 1050℃ O.F

연구 작품 중 가장 큰 사이즈인 297x420x10mm 도판에 10월의 이미지를 색으로 기록한 작품이다. 가을 특유의 맑고 청명한 밤과 짙은 단풍을 던컨유(Cobalt Blue와 Cranberry)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던컨유 특유의 선명함과 짙은 원색이 효과적으로 발색될 수 있도록 4번씩 붓 시유를 하였다.



〔작품4〕 20170206 〔작품5〕 20170127 〔작품6〕 20170205
 〔작품7〕 20170203 〔작품8〕 20161208 〔작품9〕 20170208

148x210x10mm / 210x297x10mm each, 조합토, Duncan Cover-Coat,
 Duncan Envision Glazes, 하회전사, Ceramic Pencil , 1050℃ O.F

본 작업도 일상의 기록 중 일부로써, 도자 작업에 처음 사용하는 하회전사와 유약, 화장토의 발색을 실험한 시편의 기록들이다. 실제 사용되었던 시편은 작업당일을 의미하는 오브제로 도판에 나타나며, 도판자체가 작업의 메모장이 되어 기록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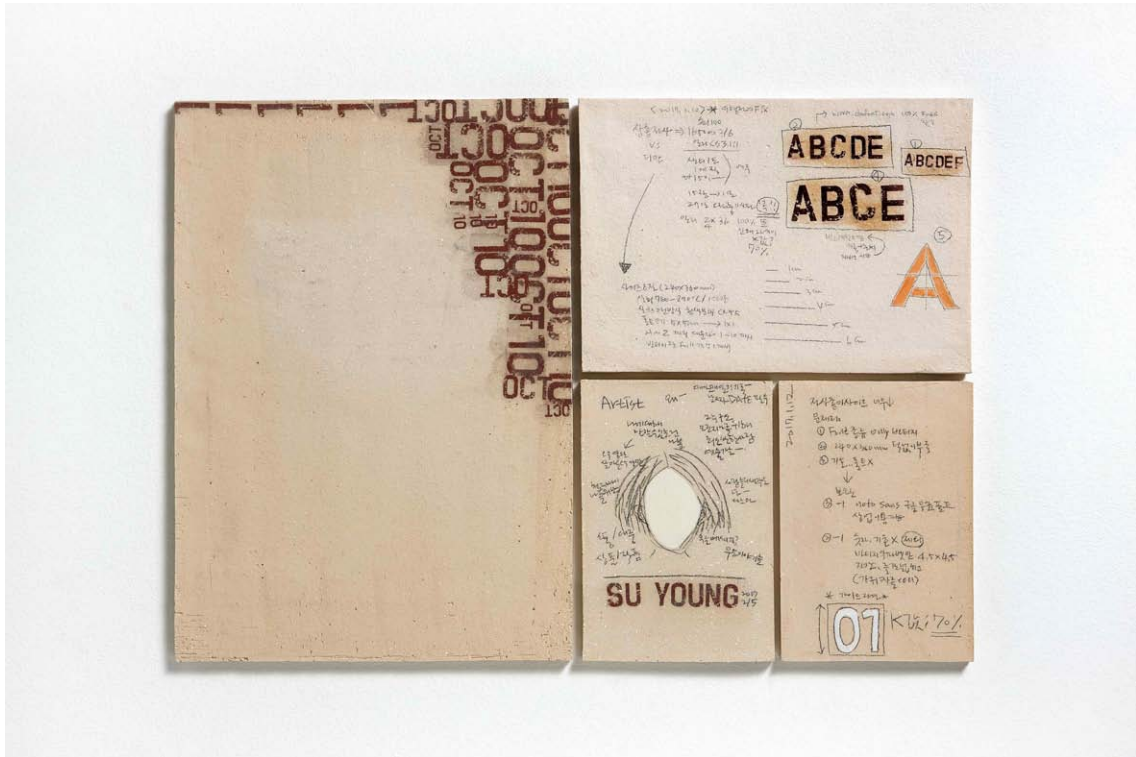
〔작품10〕 20160924 〔작품11〕 20170104

〔작품12〕 20170118 〔작품13〕 20170109

297x420x10 / 148x210x10mm / 210x297x10mm each, 조합토, Duncan Cover-Coat,

Duncan Envision Glazes, 하회전사, Ceramic Pencil ,1050℃ O.F

인화기법을 사용하여 수기와는 또 다른 느낌의 기록을 나타내었다. 도장을 찍은 후에 흑 상감을 한 후 850℃로 초벌소성 하였다. 유약 없이 소성되어 조합토 고유의 미색과 흑 상감된 텍스트의 대비는 가독성을 극대화 시킨다. 본 작품의 전시를 준비하면서 갤러리에 걸어들 종이 전시포스터 대신 사용하기위해 만든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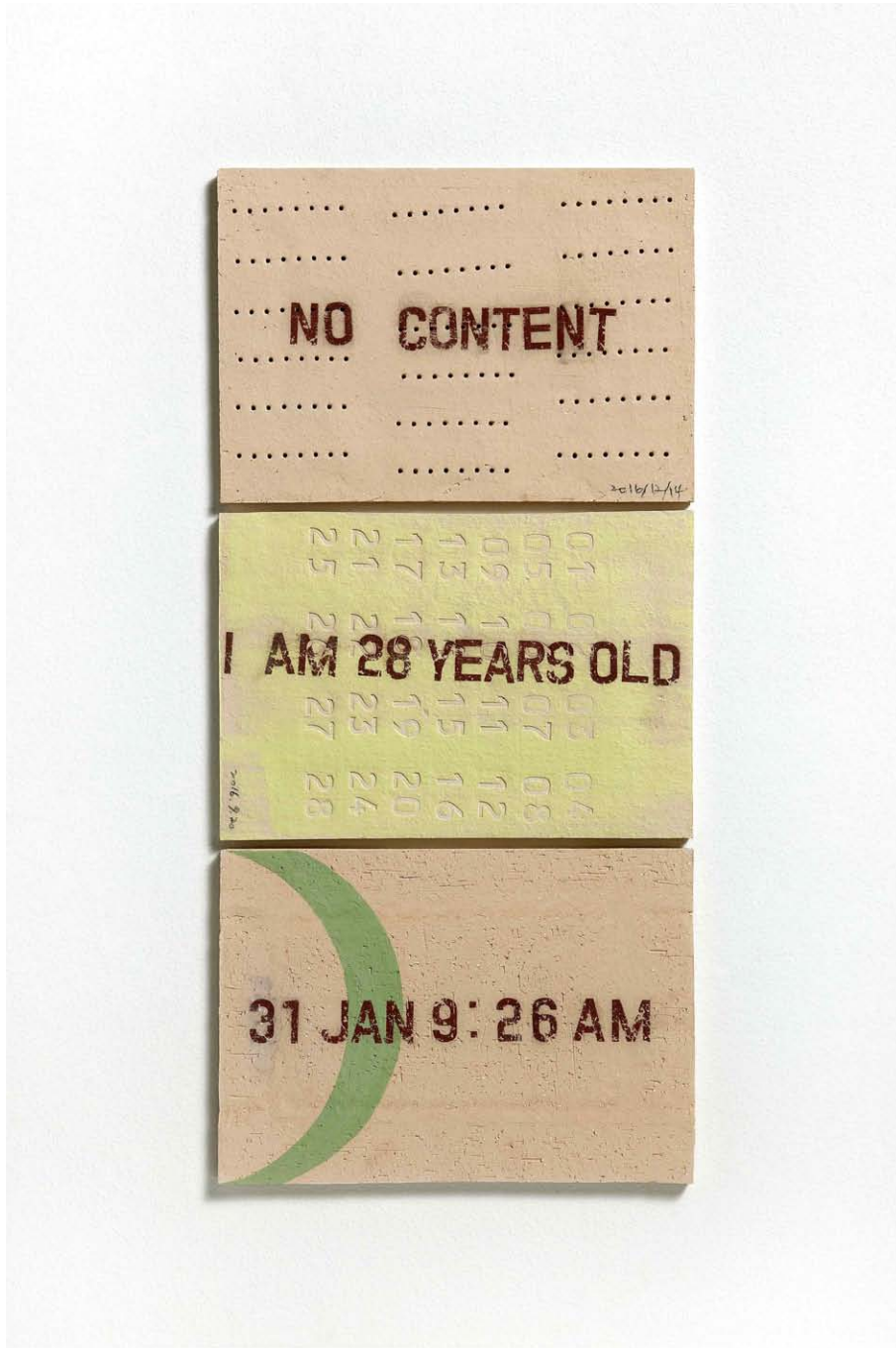
[작품14] 20161010 [작품15] 20160110

[작품16] 20170205 [작품17] 20170112

297x420x10 / 148x210x10mm / 210x297x10mm each, 조합토,

Duncan Cover-Coat하회전사, Ceramic Pencil ,1050℃ O.F

하회전사의 색과 도안이 결정된 후, 실제 도판에 전사 실험을 기록한 작품이다. 전사 도안의 텍스트 사이즈는 각각의 사이즈별 도판에 적절한지에 대한 수축률과 검정색 세라믹팬슬과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지 실험하였다. 세라믹 팬슬의 수기느낌과 인쇄된 활자의 가독성을 위해 유약 없이 소성하였다.



〔작품23〕 20161214 〔작품24〕 20160920 〔작품25〕 20170131

297x420x10mm each, 조합토, Duncan Cover-Coat,
하회전사, Ceramic Pencil ,1050℃ O.F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날들을 짧은 텍스트만으로 가시화 시킨 작품이다.
‘No Content’와 날짜만 으로 하회전사를 하여 심플하게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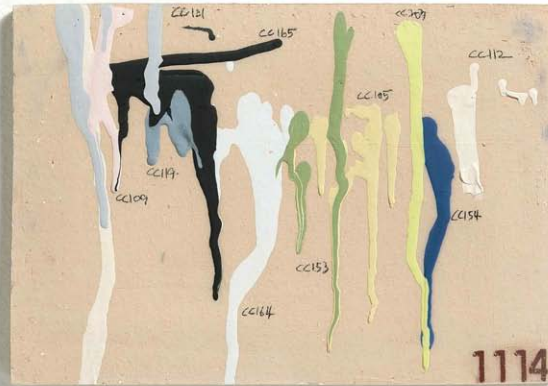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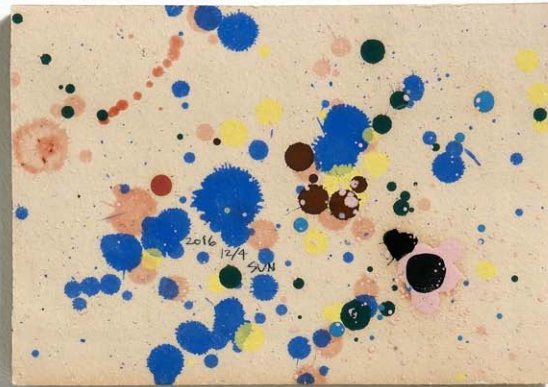


〔작품18〕 20161214 〔작품19〕 20160920 〔작품20〕 20170131

210x297x10mm each, 조합토,

Duncan Cover-Coat, 하회전사, 1050℃ O.F

도판 시리즈 중 가장 큰 사이즈인 A3 에 작업한 작품이다. 대부분의 작업들은 디테일한 스케치 없이, 작업 당일의 감정과 순간을 즉흥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이 3개의 작품은 컬러와 텍스트의 레이아웃을 잡은 후에 제작하였다. 가장 큰 사이즈의 연속된 도판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부담스러운 내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표현하였으며 작업을 제작하며 유독 힘들고 실패했던 며칠의 기록이다.



〔작품21〕 20161204 〔작품22〕 20161114

210x297x10mm each, 조합도, Duncan Cover-Coat,
Duncan E-Z Stroke, 하회전사, 1050℃ O.F

사물을 재현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도판에 물감을 뿌리고, 튕기는 등의 행위를 통해 도판위로 나타난 것은 움직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즉흥적인 행위지만 어떤 이미지나 느낌을 발견 할 수 있다. 앞서 보인 몇몇 작품이 곧 시편이자 연구 작품이 된 것처럼 작업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 자체도 기록의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제작한 작품이다.



〔작품26〕 20161130 〔작품27〕 20161012

〔작품28〕 20170102 〔작품29〕 20170124 〔작품30〕 20161121

148x210x10mm / 210x297x10mm each 조합토, Duncan Cover-Coat,

하회전사, Ceramic Pencil ,1050℃ O.F

전시장 Display



IV. 결론

일상의 기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아를 찾아 가는 가치 있는 행위가 기록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소한 정보들을 1인칭 시점에서 도판에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도자조형으로써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상과 기록에 대한 고찰과 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작품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쓰기라는 행위를 도자기법과 혼용하여 도판을 제작할 수 있었다.

둘째, 선명한 발색이 장점인 던컨 유약과 화장토를 사용하여 도자기의 질감과 함께 어우러지는 색상을 통해 기억과 순간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 할 수 있었다.

셋째, 일반적으로 유약 위아래에 표현되는 전사를, 하회용 고온안료로 유약이 없이도 매트(Matt)한 표면에 1050℃로 전사 할 수 있었다. 이에 텍스트들을 종이에 표현된 것처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넷째, 흙이라는 소재를 포함하여 기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타 소재들을 설치(Installation)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가 되었고, 도판에 직접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체험 공간(Experience Zone)을 만들어 관람객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일상과 기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작품을 제작 하였다. 일상을 모티브로 한 기록의 행위를 시각적으로 도판에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흙이라는 질료의 물성과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압성형기법으로 다수의 기물을 일정한 사이즈로 제작 할 수 있었고, 하회전사와 채색도구를 이용하여 다채로운 시각적 표현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영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흙은 기록을 오래 보관하고자하는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소재였다.

하지만 다수의 도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휘거나 뒤틀림, 갈라지는 등의 문제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소지의 수비, 성형, 재단, 건조, 소성 등의 각 과정별로 주의하며 제작 하였지만, 변수는 온도 같은 날씨를 포함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겨울에 제작한 도판들은 건조가 더딘 문제를 제외하고도 소

성 후 수축률이 달라지기도 했고, 여름에는 도판 각 끝의 모서리가 빨리 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여러 시도 끝에 차차 불량률을 줄일 수 있었지만 초반 작업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작업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사소한 습관이 연구의 배경이 되어서, 작품으로 만들어 지기까지 본인에게 작업을 대하는 자세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도판들이 지나간 순간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매개체가 되어, 관람자에게도 그들의 기억과 추억을 이끌어 내주는 간접적인 소통을 제공 하였다. 이렇게 도자 조형물로 표현된 작품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상처럼,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능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1] H.H. 에너스, (1991), 「현대미술의역사」 인터네셔널아트, p.44
- [2] Wheildon, Colin (1995), Type and Layout: How Typography and Design Can Get your Message Across - Or Get in the Way》. Berkeley: Strathmoor Press, p.57

학위논문

- [1] 김정화, (2015), 「이미지와 텍스트가 혼용된 미술작품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이후 서양미술을 대상(對象)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 [2] 김은미, (2016), 「온 카와라(On Kawara)의 언어를 사용한 자기 기록적 작업에 대한 연구. '저자성'과 '지연된' 시간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9-41
- [3] 오상미, (2010), 「장 미셸 바스키아의 회화 연구 : 기호화된 상징성 표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논문

- [1] 정무환, (2015), 「멜 보크너(Mel Bochner)의 미술에 나타난 언어의 타이포그래피적 표현과 의의」, 극동대학교

웹사이트

- [1]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2]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3] 네이버국어사전, <http://kcdic.naver.com/>
- [4]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5] 클레이파크, <http://claypark.net/>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of the Everyday life's Recording.

Oh, Su Young

(Supervisor Lee, Myung Ah)

Dept. of Ceramic Art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Record' has the power to invoke any kind of memories with the flow of time. Through 'Recording', 'Documenting' we are able to escape the fear of losing the memory for an instant period of time.

It is not only an equipment to bring back past images instantly, it is also an act of expressing a meaning of one self.

This is because the reproduced images of visual representation portrays through documents of one's reality experiences

Therefore, the traces left by the scribe brings back at the 'personal history' through the reenacted images.

Human memories continuously creates and disappears.

Even at this very moment becomes the past, merges with past memories, and makes another moment.

These memories can play a role of peace for a moment in reality and becomes an important motive for artists to create art.

The everyday images and records expressed in this work are sometimes not logical or rational. but, It is a valuable record for me and it is a meaningful work that captures moments that we do not want to forget by visualizing the past that is easily lost.

These records are made of the pavement, and through this process, subjective and extremely personal stories regarding the past memories and past moments

are indirect link of communication that lead viewers to their memories and memories.

So Naturally, the paper became a motive in form and size during the production of the work.

Rather than a simple paper, we created standardized frame of memories to show the space from the scribe's childhood

In the frame, memory was expressed in ceramic form through color, text, objects,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look for a new direction of ceramic molding through this work. Such a record of everyday life is aimed at finding the identity and self of the researcher. Furthermore, I think that the recording act has an aesthetic value that can find new ways of visual expression in plastic arts.